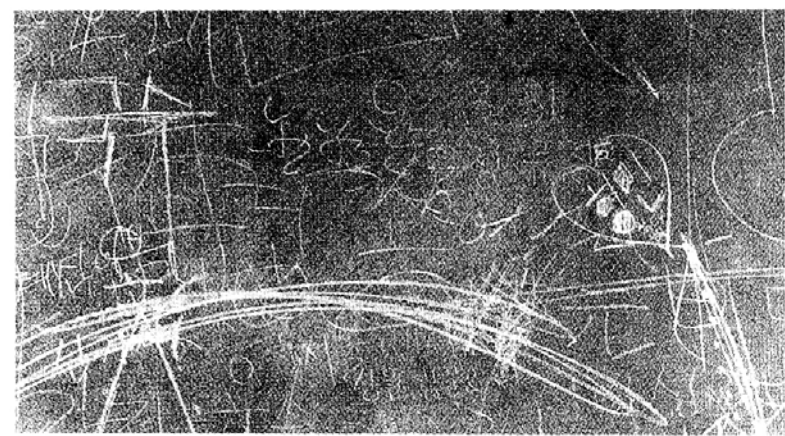


현 불 뉴스

“낙서에 멩드는 불교문화재”

무량수전·수마노탑등 곳곳 훼손...대책 절실

성보가 낙서등 무분별한 훼손행위로 망가지고 있다. 국보·보물을 비롯한 각종 성보들이 당국의 관리체계 미흡과 일부 관람객들의 보호의식 결여로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보인가·낙서판인가 제17호)의 벽면 모습. 국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곳곳의 성보가 훼손되고 있어 온갖 낙서로 훼손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주=고영배 기자>

북동포돕기 운동본부 12일 창립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12일 오후 2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창립된다. 동산반야회 결별한 우리는 선우 한국JTS 대불련 등 26개 불교단체는 그동안 5차례의 준비모임을 갖고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를 창립기로 했다.

운영위원장 박광서교수(서강대, 우리는선우 공동대표)는 “준비모임을 통해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불교대중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것은 종교인의 당연한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종교 강요교사 경기교육청 경교조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성덕대왕신종의 신비한 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국보 제29호)을 안전진단하고 있는 포항공대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11월 25일 “구리와 모래가 함께 섞인 종의 내부 위쪽에 모래 등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5~6군데에 걸쳐 지름 2~3cm의 타원 형태의 공간이 생겨 강도가 크게 떨어져 계속 타종할 경우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 국립중앙박물관 12일 공개

국립중앙박물관내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개축해 새로 단장한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2일 개관식을 갖고 2003년 용산에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설 때까지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번에 개관하는 임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건평 5천 5백여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불교조각실, 선사실, 고구려실, 신라실, 고려조각실 등 18개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불교조각실에는 금동미륵불가사(국보 제78호) 등 모두 80여점의 불교유물이 전시된다.

Table with 2 columns: '1' and '2'. Each column contains a grid of numbers from 1 to 31, representing a calendar or schedule.

달력크기/26cm x 26.7cm 보금특가 1부담 /1,300원

주문일부부터 5일 이내 납품가능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

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보훼손은 일차적으로 해당사찰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문화재관리국 국보관리 담당자는 “인력이나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금으로부터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보유사찰을 포함한 관리단체의 정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용주사 교구신도회 출범

정락스님 “사찰운영 적극 참여” 당부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교구신도회가 지난 27일 용주사 문구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용주사 교구신도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신도회장에 용주사 신도회장 홍성호씨(경기도의원·신한국당)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창립법회는 추후 병행키로 했다. 또 부회장 및 임원구성은 신임회장과 용주사주지 정락스님에게 일임키로 했다.

창립총회에서 정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운영에 있어 세전에는 스님들만으로 가능했으나 요즘 시세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신도회가 구성되지 않은 말사의 신도회 창립

이 해당교사와 교장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날 15일 경기도교육청에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한 해당교사와 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에밀레종 신비소리 못듣는다”

상층부서 결함 발견...타종 어려울듯

소 신형기박사는 “종의 성분분석을 위해 종 조각(시편) 채취 작업에 발인된 중 이같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종의 내부 상층부에 대한 결함의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길병원 불자모임 7일 ‘가동’

수원법조인·경기은행 등도 준비...경기권 ‘새바람’

인천지역 최초로 병원불자회가 창립된다. 인천길병원 불자회는 12월 7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병행한다. 또 수원지역 법조인과 경기은행도 불자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불교세가 미약했던

경기지역에 새로운 불교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역 법조인들도 불자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은행도 연말에 불자모임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창립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류승무교수 ‘조계종 총회의원 의식 설문’

조계종 총회의원들은 의원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종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 구상, 의지부족 등의 요인으로 총회가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30일까지 총회의원 81명에게 총회의원의 자질과 역할, 중앙총회의 정치경제적 요건, 총회의 미래지향적 기능 등 27개항에 걸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한 30명에 대한 응답결과 밝혀졌다. 또 총회의원 22명(73.3%)은 스스로 이전보다 자질이 향상됐다고 자랑하면서도 과반수에 달하는 23명(75%)총회의원들이 개최된 사전준비경도, 종헌준비의 숙지경도, 총회인간의 인적경도에 불충분하다고 하며 총회의원이 맡는 하역 수행능력에 대한 자질향상에는 달리 실무적 자질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준비 등 실무자질 제자리걸음

“제가신도의견 제대로 수렴 못했다”

또 70.3%에 달하는 21명의 총회의원들은 중앙총회 대외기구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구발달사의 의견은 어느정도 수렴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자기신도 의견에 대한 수렴은 제대로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류교수는 총회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총회의원들의 겸직제한 기준을 재고해 의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총회의원 개인의 활동을 공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총회활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교수의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년클럽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천화 지선)가 ‘중앙총회의 진단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2차 총회세미나에서 발표된다. <필>

1300년 고찰 삼화사 수행환경 ‘최악’

시멘트업체 석회석 채취로 분진·진동 극심

1천3백년 고찰이 시멘트업체의 석회석채취 및 발파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으로 폐사위기에 처해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5일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가 쌍용그룹에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으로 밝혀졌다. 주지 원행스님에 따르면 “쌍용양회 석회석채취를 위해 사찰에서 2.5~3km지점에서 매일 2차례씩 발파작업을 하고있으며 발파진동으로 법당의 기둥과 벽체가 갈라지고 탑 기단석이 물러나듯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한 “발파때 소음과 분진으로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삼화사가 불교 본래정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복원할 것을 강력요구했다”고 말했다. 삼화사는 공문을 통해 이같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공

“진관스님 불법구금 명백한 인권유린”

대체위, 관계자 형사고발

진관스님 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위원장 명진)는 지난11월 26일 평불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교대책

마음 육신을 아무리 씻어본들

육신을 아무리 씻어본들, 먹은 것 못 먹은 것을 아무리 가져본들 마음보다 더 깨끗하겠는가. (한마음요전)

협찬 한마음선원 발행제회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Advertisement for Buddhist calendars. It features two calendar grids for the years 1996 and 1997. The 1996 calendar is for the month of December, and the 1997 calendar is for the month of January.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감로기획' (Ganro Planning) and mentions that orders are shipped within 5 days.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Advertisement for the 'Buddhist Tower of Mystery' (佛탑다라니). It describes the spiritual power of the 'Buddhist Tower of Mystery' (佛탑다라니) and offers a free booklet to those who donate. The ad includes a list of 10 reasons why one should donat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보문포교원' (Bomunpo Kyowon).